2026.04.24

Macro Comment

1Q 국내 GDP 전기비 1.7% 성장

흥국거시경제 **김진성** / (02)6742-3533 / jskim@heungkuksec.co.kr

- 26.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년대비 3.6%로 예상을 크게 상회
- 반도체 수출증가, 최종소비(민간+정부소비)에 이어 고정투자 증가도 가세
- 이란전쟁 영향 변수이나 26년 국내 GDP성장률 전망 기존 2.0%에서 2.5% 내외까지 상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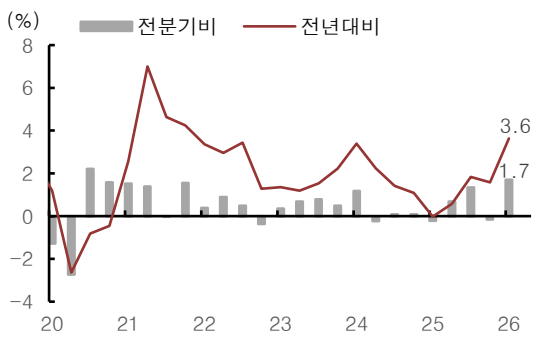
수출과 내수 전 부문의 성장세가 동반 개선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은 전기비 1.7%, 전년동기비 3.6% 성장하여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전기비로는 20년 3분기 이후, 전년동기비로는 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지난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2%, 전년동기비 1.6%로 다소 부진했던 영향도 있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성장세가 기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수출의 큰 폭 증가와 민간소비의 견조한 회복이 강한 성장의 주된 동력이나 이 외에도 수요 전 부문에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최종수요가 전기비 2.1%, 전년동기비 4.9% 증가하여 수요기반의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을 더한 국내총소득(GDI)는 전기비 7.5%, 전년동기비 12.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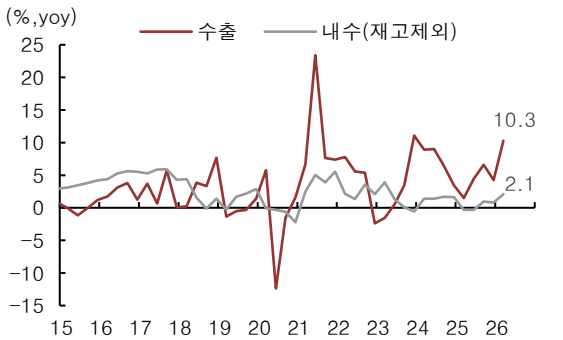
전년대비 성장에 대해 내수와 순수출의 기여도는 각각 2.3%p, 1.5%p로 전분기 1.0%p, 0.5%p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수출은 반도체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기비 5.1%, 전년대비 10.3% 증가했다. 수입도 전기비 3.0%, 전년대비 7.7% 증가하여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민간소비(+2.6%yoy) 뿐 아니라 정부소비도 전년대비 4.0%로 2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림 1 **국내 GDP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수출과 내수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Heungkuk 흥국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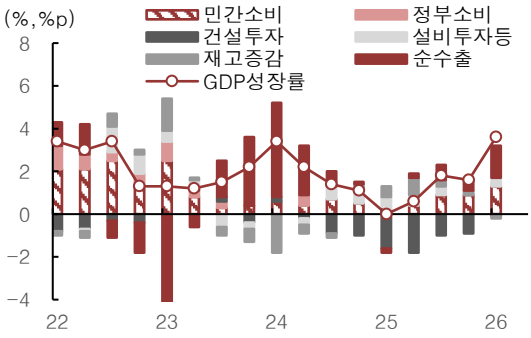
고정투자는 정부투자 증가세(-1.3%yoy)가 주춤한 가운데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10분기 연속 전년대비 감소했던 민간투자가 증가세(+1.7%yoy)로 전환하였다.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비 -1.4%로 감소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전기비 2.8%로 반등했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증가했다. 1분기중에는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는데 전기비 4.8%, 전년동기비 3.6% 증가했다. IT수출 호조에 이어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난 결과이다.

이란전쟁의 영향은 1분기 GDP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으나 2분기 이후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제유가의 상승과 원자재 공급 차질은 국내 경기회복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확대와 실질 지출 감소, 원자재 조달 차질에 따른 조업조정 등으로 국내 소비 및 투자를 둔화하는 요인이다. 4월 현재, 휴전 협의가 진행 중이나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로 올해 성장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기존 전망 2.0%를 기준으로 상반기 종전을 전제로 GDP성장률을 1.8%, 하반기까지 전쟁상황이 연장될 경우 1.5%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GDP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이란전쟁에 대한 악화시나리오를 전제로 하더라도 연간 국내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 유인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단순 반영만으로도 우리의 기존 전망 대비 0.3~0.4%p 상향 유인이 생긴 셈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유가상승과 물류차질 등에 따른 지출감소, 수입감소, 재고감소 등 성장률 상하방 변동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더라도 심각한 전쟁 확산 시나리오를 배제한다면 올해 국내 GDP성장률은 2.5%내외로 상향 가능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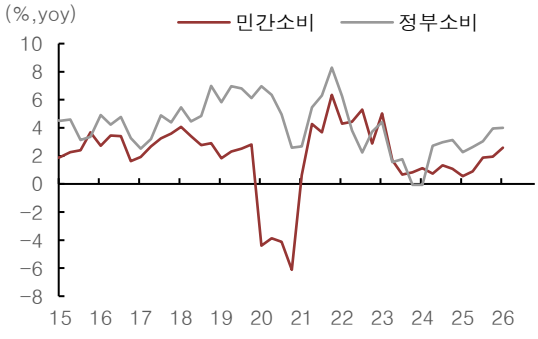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예상보다 강한 국내 경기회복세가 확인됨에 따라 최근 인플레 기대심리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고, 업종별, 지역별 경기차, 부동산 경기편차가 큰 상황에서 성장률 및 공급측 인플레 압력을 전제로 통화정책을 중립 이상으로 강화하기는 단기간 쉽지 않아 보인다. 상당기간 한은 기준금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3 **분기별 GDP성장(전년비)에 대한 수요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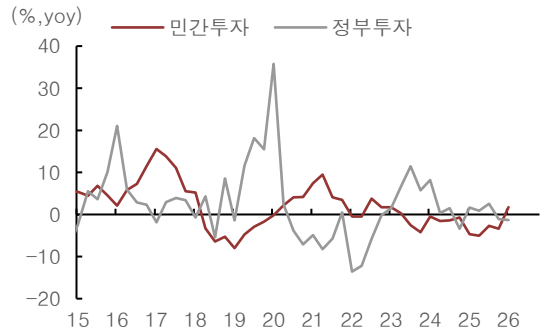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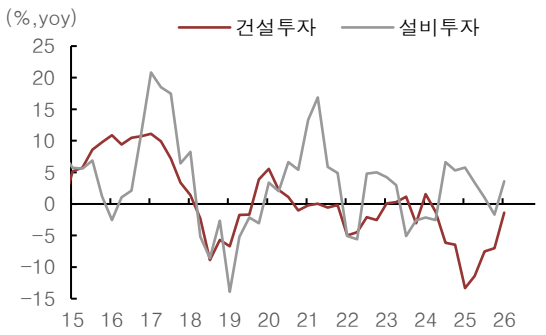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민간투자와 정부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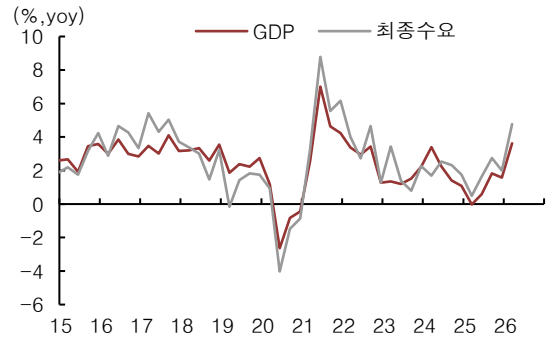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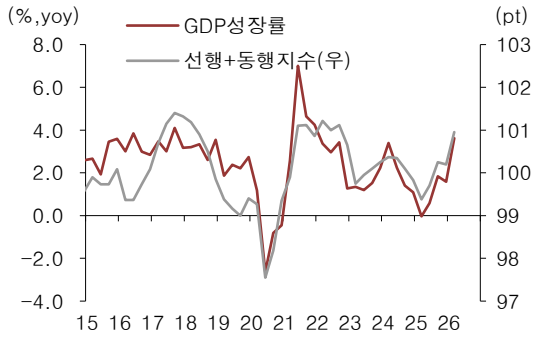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최종수요와 GDP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경기지수와 GDP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주: 선행+동행지수는 각 순환변동치 평균, 26.1분기는 1~2월 평균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보고서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흥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흥국씨앗체는 흥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흥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흥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

Heungkuk
흥국증권

□ 주소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14층)
(리서치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6층)
□ 전화번호 영업부 대표 02)6742-3635
□ 팩스 영업부 대표 02)739-6286